

동물 없는 동물원 우리로 성찰한 도시 공간

December 16, 2016 | 손택균 기자

동물 없는 동물원 우리로 성찰한 도시 공간

노충현 개인전 '자리'

"동물원의 우리는 부조리극의 무대와 같았다. 우리 속 베틀은 그 무대 외 동물들에게는 어떤 쓸모도 없다. 우리 밖 구경꾼의 시선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 서초구 페리마켓갤러리에서 열리는 노충현 작가(46)의 개인전 '자리'에 걸린 유채화 13점의 피사체는 '동물이 없는 동물원 우리'다. 노 씨는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의 동물 우리를 촬영한 사진에서 공간과 구조물을 선택해 조합하고 캔버스에 옮기며 동물들을 지워냈다.

관람객이 마주하는 것은 엇기설기 빗줄로 엮은 나무기둥, 덩그러니 허공에 매달린 페타이어 그네, 동물들 그림 우리 속 베틀 등의 이미지다. 설명 없이 작품부터 만난 이 중에는 동물원 공간을 담았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2005년 첫 전시 기회를 얻고 몇 그림과 고민하다가 찾아낸 소재다. 어떤 분이 '복용량 그림

잘 봤어'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내가 동물원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다 보니 우리라는 공간이 가진 모순이 눈에 들어왔다. 대학(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있던 정도 연극무대 미술 일을 했다. 그때 경현의 영향도 있었을 거다."

동물원 풍경을 담은 그림에 동물들을 없으면 보는 이의 시선 초점이 동물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노 씨는 공간을 보게 하려면 그림에서 동물들을 빼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려 놓고 보니 '사용지'를 지워냈을 때 심려가 불분명해지는 전형적인 근대 도시 공간이 드러났다.

"꼬마 때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와서 죽이 도시에서 살아왔다. 서울에서 거주하기의 복잡다단함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편이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한강공원에 자주 나간다. 그곳에서 그때그때 심장과 광명하는 공간을 포착해 그림으로 옮겨 왔다. '자리'보다 더 꾸준히 이어 온 그 연작에 '살풍경'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도시 공간처럼 그리 예쁘지 않은 구석들을 찾아내 해석하는 노 씨의 작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유채화 '자리'(2016년) 앞에 앉은 노충현 작가. 그는 '우리 후면 벽체는 원래 창살인 것을 재구성한 요소다. 원숭이 우리는 특히 다른 동물 것에 비해 화색적'이라고 말했다. 손택균 기자 son@donga.com

가 달린다. 그는 동물원 우리의 부조리를 현대 서울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짙어진 빌레마에 연결시켜 바라본다. "첫 시도 후 '자리' 연작은 오랜 기간 길을 잃고 멈췄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뒤 '주체가 사라

진 공간'의 의미를 돌아보며 작업을 재개했다. 도시 공간은 시선의 범위를 기두고 자유를 제한한다. 멀리, 가까이, 높게, 낮게... 빛은 자리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승통을, 그러나 한강에서 찾곤 한다." 손택균 기자 son@donga.com

윤봉길 의사 순국 84주기 오늘 韓美中日 국제학술대회

19일 윤봉길 의사 순국 84주기를 앞두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학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진우)는 국제학술회의 '대한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와 국제의 영향'을 16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

학술대회는 윤 의사의 의거가 한국의 독립과 독립운동에 미친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서상문 고려대 연구교수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와 중화민국의 한국독립운동 지원'에서 의거가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만인 국민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를 이끔어왔음을 밝힌다.

이 밖에 '카이로 회담의 진행과 함의, 그리고 거기에 끼친 윤봉길 의사의 의거의 영향'(김학준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국의 독립운동과 카이로 회담'(제임스 테트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장제스 카이로 선언과의 관계'(이상철 일본 류코쿠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조종업 기자 j@donga.com